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13-2

(공개)

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

2023. 5. 1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(요약)

1. 추진배경

- '23.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$\Delta 7.9\%$ 감소한 273억달러를 기록
- 중소기업 수출을 반전시키고자 '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'을 발표 (비경, 1.26), 세부과제*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
 - 올해 수출 플러스 (1,150억 달러, 0.5%)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보를 위한 가용 정책역량 집중 필요

2.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분석

- (총괄) 수출 감소세 지속, 수출 중소기업 수 소폭 증가
 - (수출액)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.9% 감소한 273억달러
 - * 전체 감소액 ($\Delta 23$ 억 달러) 중 對중국 감소액 ($\Delta 11$ 억 달러)이 45.2%를 차지
 - 대기업 ($\Delta 15.1\%$)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 ($\Delta 7.9\%$)
 - (기업수) 수출 중소기업 수 증가 (60,328 $\rightarrow$ 61,379개, 1.7% $\uparrow$)
 - (온라인수출) 수출액 (0.3%), 수출기업수 (33.5%) 모두 증가
- (국가별) 신흥시장 수출 약진, 4대 주요국 수출은 감소
 - (신흥시장) ^{5위}러시아 (+57.0%), ^{6위}인도 (+0.3%), ^{8위}멕시코 (+5.3%), ^{10위}태국 (+0.9%) 등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
 - (4대 주요국) ^{1위}중국 ($\Delta 18.9\%$), ^{4위}베트남 ($\Delta 14.0\%$)은 제조업 업황 악화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
 - ^{2위}미국 ($\Delta 9.2\%$), ^{3위}일본 ($\Delta 8.0\%$)은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(美), 석유제품(日)의 수출실적 감소에 기인
- (품목) 국가별 수요, 업황, 원자재 가격 영향 등에 따른 호조·부진
 - (증가) ^{1위}화장품 (+9.8%), ^{2위}자동차 (+99.0%), ^{4위}자동차부품 (+7.1%)은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
 - (감소) ^{3위}플라스틱제품 ($\Delta 16.1\%$), ^{5위}합성수지 ($\Delta 19.9\%$)는 중국시장 영향으로 감소

- (중소기업 주도 핵심품목) 총수출 대비 수출액,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25대 품목을 별도 분석
- (평가) 자동차(중고차)·화장품 등 16개의 품목이 호조와 회복 조짐을 보이거나, 플라스틱제품 등 5개는 부진한 상황

3.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 이행 실적

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

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집중 지원 (4~5월)

- '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' 신설 (100개사 선정, 최대 1억원) 및 글로벌쇼핑몰(13개)과 협업, 우수 제품 입점·판매 지원 (1,650개사)

② 콘텐츠·SW 등 서비스 수출 촉진 (3월)

-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쿠퍼제 도입('22.9.7→'23.14.1%), 부처 협업 (문체부, 복지부 등)으로 수출 유망기업(56개사) 발굴 및 수출바우처 지원

③ 중동·유럽 등 벤처·스타트업 전략시장 진출 지원 (3월)

- 사우디 BIBAN에 한국관 조성(10개사), 'VIVATECH(6월, 프랑스)' 행사에 '올해의 국가'로 선정
- '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' 본격 추진 및 AWS·오라클·IBM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 확대

②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

① '글로벌 강소기업 1,000+' 출범 (3월)

-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을 4단계로 구분, 총 1,038개사를 선정하고 수출바우처 및 금리 우대, R&D 연계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

②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 (1월)

-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% 신설하여 우대

③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 (1월)

- 주요 수출지원 정책에서 간접수출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대우

- '튼튼한 내수기업'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2배 확대 (3천→6천만원) 및 '무명의 수출용사' 포상 신설

③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

① 해외거점 확충, 전시회 참여 확대 등 현지진출 밀착지원

- 두바이(3.8), 뉴욕(4.24) 등 수출BI를 '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'로 전환하고,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- K-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태국(3월) 및 KCON 도쿄(5월), 해외전시회(1분기, 16회) 등 현지마케팅 지원

② 무역장벽 극복 지원

- 저비용 인증 패스트트랙 도입(3월), '6대 핵심인증' 전담반 설치 (4월)
- 중진공, 신·기보 등의 무역금융 17.8조원 중 20.4% 공급 (3월말)

③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·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

-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업 1:1 전담 관리, '민관연 수출 활성화TF'를 신설하여 수출여건 점검

4. 추가 보완과제

① 수출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의 전략적 우대

- (정책자금)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 한시적 유예 (~'24년), 이차보전 대출시 금리부담 완화(3%p 인하) ('23.하)
- (보증) 소요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 확대(100%→110%) ('23.하)
- (R&D) 과제평가지 '수출액' 가중치(2배)를 부여하고 후속 연구 개발과제 참여시 수출기업의 '선행연구' 평가 우대 ('23.하)

② 수출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

- (수출선도기업 육성) 일정 규모 이상 수출기업(수출액 500만 달러↑)에 대한 R&D 연계로 제품 경쟁력 확보 지원 (5월)

- (간접수출기업 우대) '무명의 수출용사'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우수 기업에 수출마케팅, 정책자금, R&D, 스마트공장 등 우대 지원 (5월)

③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다각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

- (수출바우처) 하반기 물량의 65%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에 배정
- (물류인프라) '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'를 '25년부터 본격 운영

④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, 현지진출 활성화

- (해외거점)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인 GBC 신규개소 추진 (9월)
- (현지진출) K-POP 등 연계 판촉전* 개최, UAE·미국 등 전략시장 중심 글로벌 대형 수출 전시·상담회** 지원('23. 40회)

* 태국 방콕(3월, 완료) → 일본 도쿄(5월, 완료) → 벨기에 브뤼셀(6월) → 미국 LA(8월)

** (UAE, 6월) 수출·투자박람회, (미국, 10월) 세계한상대회, (독일, 9월) 베를린 가전박람회(IFA)

⑤ 온라인·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수출 촉진

- (K-상품 판촉전)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쇼핑 시즌별로 집중 프로모션 (유망상품 기획전, 할인행사 등) 추진 (5월~)
- (온라인 한국관)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하여 구매문의·계약협상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(5월~)

⑥ 무역장벽 부담 완화 및 현장 지원체계 강화

- (정책금융) 수출시장 개척 (설비투자 포함) 자금 추가공급 추진 및 초격차 분야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5,500억원 공급 (기보, 5월)
- (글로벌규제·해외인증) 인증 전담대응반 인증취급 범위 확대* 및 방문형 컨설팅 지원, 신청서류 및 절차(22종→11종) 간소화(6월)

* (기존) 6개 인증(CE, FDA, NMPA 등), ESG·탄소중립 등 → (확대) 8개 인증(IECEE, PSE 추가)

- (현장애로 해소)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'지역 수출 활성화 TF'를 구성하여 수출기업 지원 및 애로해소 체계 확충 (6월~)

* 권역별 현장 간담회 : 호남(6월) → 충청(7월) → 대구·경북(8월) 등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분석	2
III. 「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 (1.26)」 이행 실적 ...	7
1.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	7
2.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	8
3.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	9
IV. 추가 보완과제	10
V. 추진 일정	15

I. 추진 배경

◆ 최근 2년간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, '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 지속

- (동향)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1,1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,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'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

* 중기 수출 증가율(%) : ('22.1Q) 11.3 → ('22Q) 1.6 → ('23Q) △2.4 → ('4Q) △12.1 → ('23.1Q) △7.9

- 총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'23.1분기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△7.9% 감소한 273억 달러를 기록

* (총수출) 1분기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: ('22.1Q) 1,734(+18.4) → ('23.1Q) 1,515(△12.6)
(중기수출) 1분기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: ('22.1Q) 296(+11.3) → ('23.1Q) 273(△7.9)

- 다만, 총수출(△12.6%) 및 대·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* 시현, 수출기업수**는 전년동기대비 1.7%로 소폭 증가

* '23.1Q 수출증감률(%) : (총수출) △12.6 (대) △15.1, (중견) △8.0, (중소) △7.9

** 수출기업수 : ('22.1Q) 60,328개사 → ('23.1Q) 61,379개사 (+1,051개사)

- (전망)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,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* 및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점진적 회복 예상

* 중기 수출 상위국('22년, %) : (1위) 중국(18.8), (2위) 미국(14.2), (3위) 베트남(9.6), (4위) 일본(9.4)

◆ 既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, 中企 수출상황의 면밀한 점검·대응

- (대책 이행) 중소기업 수출을 반전시키고자 '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'을 발표 (비경, 1.26), 세부과제*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

* ①디지털 新수출시장 개척, ②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, ③현장 맞춤형 수출 지원체계 구축 → 총 34개 과제 중 12개(35.3%) 이행완료, 22개 과제(64.7%) 정상추진 중

- (대응 방향) 올해 수출 플러스 (1,150억 달러, 0.5%)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보를 위한 가용 정책역량 집중 필요

⇒ ① 수출중소기업 전략적 정책 우대, ② 수출강소기업 육성기반 확충, ③ 신흥·전략시장 진출 활성화 등 맞춤형 보완과제 마련

Ⅱ.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분석

◆ (총괄) 수출 감소세 지속, 수출 잠재력(100만 달러 미만)을 보유한 기업수 증가

① 수출액 '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.9% 감소한 273억 달러

※ 중소기업 1분기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: ('22.1Q) 296(+11.3) → ('23.1Q) 273(△7.9)

○ 對중국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, 전체 감소액 (△23억 달러) 중 對중국 감소액 (△11억 달러)이 45.2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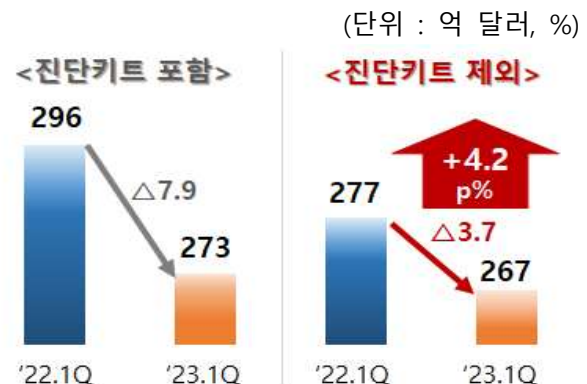
○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* 제외시, 수출 감소율은 △3.7% 수준

* 중소기업 진단키트 수출액(억 달러)/증감률 : ('22.1Q) 19.4(+11.0%) → ('23.1Q) 6.3(△67.5%)

< 국가별 수출액 감소분 >



< 진단키트 수출액 포함/제외 비교 >



② 기업규모별 대·중견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 시현

○ 중소기업 '23년 1분기 수출증감률은 △7.9%로, 총수출(△12.6%)·대기업(△15.1%)·중견기업(△8.0%)보다 높아 글로벌 불황에도 선방

【 최근 2년 1분기 수출액/ 증감률 (억 달러, 전년동기대비 %) 】

	총수출		대기업		중견기업		중소기업	
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
22.1Q	1,734	18.4	1,126	13.0	906	12.7	296	10.6
23.1Q	1,515	△12.6	955	△15.1	284	△8.0	273	△7.9

- 이는 중소기업이 대·중견기업보다 수출품목이 다변화*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을 분산해 수출 안정화가 가능했기 때문

* '23.1Q 10대품목 비중(%) : (총수출) 56.3 (대기업) 68.9, (중견기업) 51.7, (중소기업) 32.1

③ 기업수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수 증가 → 전체 수출기업도 1.7% 증가

- 수출중소기업 수는 61,379개사로 전년동기대비 (60,328개사) 1.7% 증가
- 특히, 수출 잠재력 있는 수출액 1백만 달러 미만 기업수가 약 2.2% 증가 (54,854 개사 → 56,084개사)하여 수출기업으로 진입

④ 온라인수출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수출액과 수출기업수 모두 증가

※ 온라인수출 : 관세청 정식통관자료 중 수출신고서상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 분석

- 우리나라 온라인 총 수출액 2.1억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6.6%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주도
-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.3% 증가한 1.6억 달러로 엔데믹 기조로 오프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

* 中企 온라인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: ('22.1Q) 1.62(+33.2) → ('23.1Q) 1.63(+0.3)

- 온라인 수출중소기업 수는 2,381개사 (+33.5%)로 전년동기 (1,783개사) 대비 598개사가 증가하여 성장세를 지속

◆ (국가) 다변화를 통한 신흥시장 수출 약진, 4대 주요국 수출은 감소

① 신흥시장 러시아, 인도, 멕시코 등에서 역대 1분기 최고실적 기록

- ^{5위}러시아 (+57.0%), ^{6위}인도 (+0.3%), ^{8위}멕시코 (+5.3%), ^{10위}태국 (+0.9%)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
- 특히, 러시아는 러·우 전쟁으로 급감했던 수출이 자동차 중심으로 회복, 인도·멕시코·태국은 제조업 경기 회복세로 수출 증가

② 4대 주요국 글로벌 경기악화 영향 등으로 4대 주요국 수출 모두 감소

- 1^위중국(△18.9%), 4^위베트남(△14.0%)은 제조업 업황 악화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

- **중국** 반도체제조용장비(△17.7%, 미중 반도체 갈등), 화장품(△18.7%, 애국소비)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10억 달러 이상 감소

- *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반도체제조용장비 3.0(△17.7), 화장품 2.8(△18.7), 합성수지 2.4(△27.0), 기타기계류 1.7(△30.0) 등

- **베트남** 주요 중간재 수출품이 부진한 가운데, 전년동기대비 10% 이상 수출 감소

- *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합성수지 1.5(△34.6), 플라스틱제품 1.5(△22.5), 편직물 1.1(△12.6) 등

- 2^위미국(△9.2%), 3^위일본(△8.0%)은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(美), 석유제품(日)의 수출실적 감소에 기인

- **미국** 의약품(△82.9%, 진단키트 감소)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이 감소 반면, 자동차부품(+5.1%, 완성차 판매 호조), 화장품(+8.7%, 소비심리 개선), 전력용기기(+114.1%, 제조업 경기 회복) 등 주요 수출품목 실적은 증가

- **일본** 석유단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(△28.3%)이 감소해 전체 수출이 감소 반면, 화장품(+0.2%, 대면활동 증가·한류 인기),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른 자동차부품(+7.4%)과 금형(+15.3%)은 증가

- * 석유단가(두바이유): \$95.59/배럴('22.1Q) → \$80.35('23.1Q)

◆ (품목) 국가별 수요, 업황, 원자재 가격 영향 등에 따른 호조 · 부진

① 증가 1^위 화장품, 2^위 자동차, 4^위 자동차 부품은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

- 1^위화장품(12억 달러, +9.8%)은 러시아(47.1%)·UAE(85.5%) 등 신흥시장 및 미·일 등 주요국 수출 증가로 5분기만에 플러스 전환
- 2^위자동차(11.6억 달러, +99.0%)는 CIS 국가의 중고차 수요 증가로, 4^위자동차부품(10.9억 달러, +7.1%)은 글로벌 시장 호조에 힘입어 성장

② 감소 3^위플라스틱(스마트폰 수요 부진), 5^위합성수지(유가하락) 품목 수출 부진

-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인 플라스틱제품(△16.1%), 합성수지(△19.9%)는 1위 수출국인 중국 시장 고전 등의 영향으로 감소

- * 對중국 수출액 증감률 : 플라스틱제품 △24.4%, 화장품 △27.0%

◆ **(중소기업 핵심 품목)**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(수출액, 기업수)이 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품목 25개 별도 분석

< 품목 선정 기준 >		
선정기준	(① or ②)	선정결과
① (수출액) '22년 10억 달러 이상, (총 수출액 내 중소기업 비중) '22년 40% 이상 ② (기업수) '22년 2,000개사 이상 수출 (총 수출기업수 내 중소기업 비중) '22년 90% 이상		25개 품목 (MTI 3단위 기준)

① 호조 및 회복 자동차·화장품 등 16개 품목이 호조와 회복의 조짐

- 러시아 등 구소련연방 국가로의 중고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 수출이 2개 가까이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
- 코로나 엔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였고, 의류 및 문구류 등도 역대 2위 수준 달성

② 부진 플라스틱제품 등 5개는 부진

- 글로벌 수요 둔화와 친환경 정책 등의 영향으로 플라스틱제품(△16.1%)의 수출이 최근 3년간 최저로 하락
- 반도체제조용장비(△4.9%)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중국·대만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 감소

<중소기업 25대 핵심품목 수출액 및 증감률 분석('23.1분기, %)>

- ① 호조¹⁾ : '23.1분기 수출액 최근 3년 중 1위 and '23.1분기 수출기업 수 증가
 ② 회복²⁾ : '23.1분기 수출액 (최근 3년 중 2위 or 역대('10년~) 최고치와 근접) and '23.1분기 수출기업수 증가
 ③ 부진³⁾ : '23.1분기 수출액 최근 3년 중 3위

(단위 : 백만 달러)

화장품 ²⁾	자동차 ¹⁾	플라스틱제품 ³⁾	반도체 제조용장비 ³⁾	기타기계류 ²⁾	전자응용기기	기계요소 ¹⁾	문구및완구 ²⁾	의류 ²⁾
1,200 (9.8)	1,155 (99.0)	1,114 (△16.1)	818 (△4.9)	632 (△15.6)	591 (△5.0)	591 (5.5)	401 (△4.2)	392 (△3.1)
섬유 및 화학기계 ²⁾	주단조품 ¹⁾	편직물	기타정밀 화학제품 ³⁾	인조장 섬유직물	기타산업기계 ¹⁾	기타섬유제품 ³⁾	의료용기기 ¹⁾	기타직물 ³⁾
391 (△3.7)	357 (0.7)	350 (△21.4)	339 (△43.9)	303 (△3.5)	281 (5.2)	251 (△19.4)	247 (1.4)	241 (△16.3)
패션잡화 ²⁾	농산가공품 ¹⁾	신변잡화 ²⁾	기호식품 ¹⁾	축산가공품 ¹⁾	기타 신변잡화 ²⁾	주방용품	합계	
229 (△1.4)	194 (4.7)	189 (△10.4)	168 (4.4)	121 (19.5)	93 (△8.1)	54 (△19.3)	10,704 (△1.9)	

[참고] '23년 1분기 25대 품목 수출 동향

- (호조 8개) 자동차, 기계요소, 주단조품, 기타산업기계, 의료용기기, 농산가공품, 기호식품, 축산가공품
- (회복 8개) 화장품, 기타기계류, 문구및완구, 의류, 섬유 및 화학기계, 패션잡화, 신변잡화, 기타신변잡화
- (부진 5개) 플라스틱제품, 반도체제조용장비, 기타정밀화학제품, 기타섬유제품, 기타직물

호조·회복

- ① (자동차) CIS 중고차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2배 증가해 역대 분기 최고치 달성
- ② (기계류) 기계요소, 주단조품, 기타산업기계, 의료용기기 등은 미국, 러시아, 중동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, 기타기계류와 섬유및화학기계 또한 헝가리 등 신흥국 위주로 수출이 증가
- ③ (식품·가공품) 중국과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기호식품 수출액이 증가
- ④ (화장품) 미국·일본·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과 러시아·중동 등 신흥시장 모두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모두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로 전환
- ⑤ (문구및완구) 일본으로 Kpop 관련 상품 수요가 증가하여 역대 2위 기록
- ⑥ (의류·잡화) 의류, 패션잡화, 신변잡화, 기타 신변잡화 등은 최대시장인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역대 2위를 기록

부진

- ⑦ (반도체제조용장비)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중국·대만의 수요 감소로 인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
- ⑧ (플라스틱제품) 글로벌 경기둔화와 친환경 정책 기조로 인해 중국·베트남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감소세가 지속
- ⑨ (코로나 관련 품목) 기타정밀화학제품, 기타섬유제품 등 엔데믹 기조로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수요가 줄어 수출액이 절반 이상 감소
- ⑩ (기타직물) 현수막 천 등 미국·베트남에서의 수출 감소로 2년 연속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

Ⅲ. 「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 (1.26)」 이행 실적

◇ 총 34개 과제 중 12개(35.3%)는 이행완료, 22개 과제(64.7%)는 정상추진

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

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집중 지원 (4~5월)

- (온라인 수출) 글로벌 플랫폼 입점, 마케팅, 배송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'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' 신설 (100개사, 최대 1억원 지원)
- (글로벌쇼핑몰 협업) 아마존(미), 티몰(중), 라쿠텐(일), 쇼피(동남아) 등 쇼핑몰 (13개)과 협업, 우수 중소기업 제품 입점·판매 지원 (1,650개사)

【 주요 글로벌쇼핑몰 현황 】

									
아마존	이베이	타오바오	티몰	도우인	라쿠텐	큐텐	쇼피	티키	라자다
미국		중국			일본		동남아		

② 콘텐츠·SW 등 서비스 수출 촉진 (3월)

- (서비스 수출 쿼터제)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인증절차를 간소화* 하고, 쿼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확대 ('22. 9.7 → '23. 14.1%)
*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외 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 수출 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수출 실적으로 폭넓게 인정
- (부처 협업) 문체부(콘텐츠), 복지부(바이오헬스) 등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출 유망기업 56개사를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

③ 중동·유럽 등 벤처·스타트업 전략시장 진출 지원 (3월)

- (글로벌 진출)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BIBAN*에 한국관 조성(10개사), 6월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'VIVATECH'에 '올해의 국가'로 선정
* 벤처·스타트업, VC, 대기업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아랍 벤처 생태계 홍보를 위한 벤처·스타트업 전시회로 '17년 처음 시작되어 '23년 국제행사로 확대
- (글로벌 유니콘) 후보기업 모집 등 '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'를 본격 추진하고, AWS·오라클·IBM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확대*

* ('22) 구글·엔비디아·MS·다쏘시스템·앤시스·지멘스 → ('23) AWS·오라클·IBM 추가

②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

① '글로벌 강소기업 1,000+' 출범 (3월)

- (선정) 수출액 규모별로 '유망 → 성장 → 강소 → 강소+' 4단계로 구분하여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을 선별, 총 1,038개사를 선정
 - * 유망(10~100만 달러) 506개사 → 성장(100~500만 달러) 301개사
→ 강소(500만 달러 이상) 199개사 → 강소+(1,000만 달러 이상) 32개사
- (패키지 연계)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및 시중은행·정책금융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고, 강소 단계는 R&D 연계 및 스마트공장 가점(5점) 부여

우수 사례

- **【주】세양**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, '22년 매출액 300억원, 수출액 2,858만 달러를 달성하여 강소+ 기업으로 선정
- '치과용 모터'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세계 약 120여개국에 수출하는 치기공 의료기기 분야 선도기업

saeyang

②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 (1월)

- (다변화 전략) 수출·물류바우처를 시작으로 수출지원사업*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% 신설하여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우대
 - * '23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결과 평균 수출국은 9개로, '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평균수출국(7개) 대비 증가

③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

- (정책지원 강화) 수출바우처,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등 주요 수출 지원 정책에서 간접수출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대우 (1월)
 - * '23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간접수출기업 321개사(14.1%),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선정기업 중 간접수출기업 261개사(25.1%)
- 간접수출기업, TIPS기업, 아기·예비유니콘 기업 등 '튼튼한 내수 기업' 129개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2배 확대 (3천→6천만원, 3월)
- (대외위상 제고) 간접수출기업을 격려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'무명의 수출용사' 포상을 신설 (1월), 시상식 개최 (5월)

③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

① 해외거점 확충, 전시회 참여 확대 등 현지진출 밀착지원

- (해외거점 확충) 두바이(3.8)를 시작으로 뉴욕(4.24) 등 기존 수출BI를 공유형 협업공간인 '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'로 전환
 -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금융·투자·기술교류·제품 현지화 등 센터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
 - * (예시) 도쿄 GBC 특화 프로그램 : 신한퓨처스랩과 협업하여 일본시장 진출 희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 현지화, 마케팅, 투자 유치 등을 지원(10개사 내외)
- 한류붐을 활용하여 K-POP 공연과 수출 박람회를 융합한 KCON 태국 개최(3월) → 300만 달러의 수출성과 달성



- (현지진출 확대) 1분기에 해외전시회를 개최('22.1Q 6회 → '23.1Q 16회) 하여 763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현지 마케팅 활동 뒷받침

② 무역장벽 극복 지원

- (해외인증) 저비용 인증*에 대해 상시접수·간이심사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 (3월)하고, 현장수요가 높은 '6대 핵심인증**' 전담대응반 설치 (4월)
 - * 유럽 CE (전기전자), 미국 FCC(전기전자), 국제 IECEE(전기안전) 등
 - ** 주요 6대 인증(CE, NMPA, FDA, CPNP, NRTL, FCC) 및 ESG·탄소중립 분야
- (무역금융)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진공, 신·기보 등이 운영하는 무역금융 17.8조원 중 20.4% 공급 (3월말 기준)

③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·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

- (수출지원센터 기능 강화) UAE 순방 참여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별로 1:1 전담관리 등 수출지원센터의 지역 수출기업 지원 기능 강화 (2월)
- (수출상황 점검 등) '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TF'를 신설 (3.30)하여 수출여건 및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

* (구성) 중기부 +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장 + 중기중앙회 등 협단체 대표 + 연구원, 교수 등 전문가 + 수출 중소기업 대표 등 15명 내외

IV. 추가 보완과제

- ◇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세 확보가 중요 → 가용 정책역량을 결집, 맞춤형 보완과제 마련 · 즉시시행

1 수출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전략적 우대

- ① (정책자금) 최근 1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한시적 (24년까지) 유예 (중진공, '23.하)

- * 정책자금 용자제한 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* 신시장진출지원자금 (중진공, 용자) 지원기업 중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47.7%로 절반을 차지하여 우대사항 수혜기업 확대 기대

- (이자보전율 상향) 중점지원 분야에만 적용하는 3%p 이차보전율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*에 일괄 3%p 적용 ('23.하)

- *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: 1,275개사(62.9%)

【 수출실적별 정책자금 우대사항 (중진공) 】

수출실적	우대사항	비고
내수 ~ 10만 달러	(전용자금) 내수기업수출기업화	현행유지
10만 달러 ~	(전용자금) 수출기업글로벌화, 이차보전율 3%p 신규	
30만 달러 ~	5년 3회 이상 지원 가능 신규	
50만 달러 ~ (& 20% 증가)	정책자금 금리 우대 0.1%p	현행유지

- ② (보증) 수출기업 대상 수출 관련 자금*에 대한 보증취급시 소요 운전자금 산정한도의 110%까지 확대 적용 (기보, '23.하)

- * (보증대상 채무) 무역금융,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,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, 수출환어음 담보대출, 수출환어음 매입

【 수출중소기업 보증지원 우대사항 (기보) 】

지원대상 (수출실적, 요건)	보증료	보증비율	보증금액 산정
❶ 수출예상기업 (신용장, 계약서, 수출예상 등)	0.2%p ↓	95%	신규 (수출관련 소요자금) 한도의 110% (❶, ❷, ❸, ❹ 해당기업)
❷ 수출실적기업 (당기매출액 등의 10% ↑)		90%	
❸ 수출주력기업 (당기매출액 등 30%↑ 또는 100만 달러 이상)	0.3%p ↓		
❹ 수출선정기업 (❶, ❷, ❸ 해당기업 + 정부사업 선정)			
"브랜드 K", "글로벌 강소기업" 등	0.4%p ↓	95%	

③ (R&D) 중기부 R&D ‘우수 과제’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출*에 있어 ‘수출액’ 가중치(2배) 부여 (‘23.하)

* 산출 예시 : 국내매출 10억원, 수출액 10억원(가중치 2배) → 총 매출 30억원으로 산정

- (결과 환류) 수출기업에 대해 후속 R&D 사업 참여시 ‘선행연구’ 평가지표에서 최고점(10점) 부여

② 수출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

① (수출선도기업 육성)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’ 중 강소단계 기업(수출액 500만 달러↑)에 대해 R&D를 연계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(5월)

- 우수 수출기업 간 소통·협력을 강화하고, 후배기업에 수출 노하우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(엑스포트클럽 데이) 개최 (11월)

② (간접수출기업 우대) ‘무명의 수출용사’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지원사업, 정책자금, R&D, 스마트공장 등 우대 지원 (5월)

【 ‘무명의 수출용사’ 포상기업 우대지원(안) 】

사업명	우대내용
수출지원사업	수출바우처 선정,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, 고비즈코리아 전용관 개설 등
정책자금	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이차보전 자동 선정
기술보증	수출기업 지원 보증료율 감면 및 심사완화
R&D	수출지향형 기술개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
스마트공장	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가점 부여

③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다각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

① (수출바우처) ‘23년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%(130개사)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배정하고, 간접수출기업 등 튼튼한 내수기업 우대 (6월)

- (지원 다각화 등)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% 이상 선정하고,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 수출지원 다각화(6월)

- 대기업 (포스코 등) 보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식품·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상담회 개최 (7월)

- (전략 컨설팅)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전문기관을 매칭 → 해외마케팅, 인증 획득,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맞춤형 전략 컨설팅 제공 (6월)

② (물류 인프라) 제품 보관부터 국·내외 운송, 통관 등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'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' 구축(~ '24)

- 민관협업*으로 '25년부터 물류센터를 본격 운영하고, 물류 과정 전반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

* (공공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인천국제공항공사 / (민간) 민간 물류사

** 물류사는 기업의 이용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화주에게 책정하는 요금 이하로 단가 제시

4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, 현지진출 활성화

① (해외거점 확충) 사우디의 탈석유 정책기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사우디 GBC 신규개소 추진 (9월)

- 사우디 투자부와 체결한 협약*을 바탕으로, GBC 입주기업 대상 법인설립, 인허가 등 규제사항 완화

* 사우디 투자부(MISA)와 사우디 진출정보 제공 및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협약체결

② (K-콘텐츠 연계) K-POP 등 한류공연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박람회 및 판촉전을 개최('23. 4회)하여 판로개척 적극 지원

* 태국 방콕(3월, 완료) → 일본 도쿄(5월, 완료) → 벨기에 브뤼셀(6월) → 미국 LA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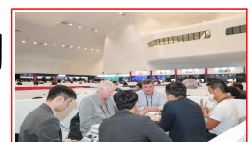
③ (글로벌 전시회) 대규모 수요가 있는 주력시장과 신규수요가 있는 신흥시장 중심 글로벌 수출전시회 참여 확대 ('22. 30회 → '23. 40회)

- 중동, 미국, 유럽 등 전략시장 내 대규모 행사*와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수출상담회 추진

* (UAE, 6월) '2023 Global Connect Korea' 개최 : ❶ 수출상담회 (K-Business Day), ❷ 한-중동 기술교류상담회, ❸ 초격차스타트업 IR 및 투자상담회 등

(미국, 10월) 2023 세계한상대회, (독일, 9월) 베를린 가전박람회(IFA)

④ (글로벌 소싱페어)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,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의 1:1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(9월)



- 특히, 최근 정상 순방 등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일본* 및 중동** 바이어 초청 확대 및 집중 타겟팅

* (일본) '23.1분기 중기 수출 3위, 화장품·의류 등 소비재 온라인수출 분야 1위

** (UAE) 제1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(3월, 두바이), 수출·투자 상담회 예정(6월) (사우디) (한)중기부-(사)투자부 MOU체결, 리야드 GBC 신규 개소 합의(3월)

⑤ (방산분야 수출상담회) 방사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(잠정 6월, 11월)

* 관심 분야별 우수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1:1 전담 매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기회 확대

-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(ADEX)에 방산 대기업과 협업하여 협력 중소기업 참여(10월)

⑤ 온라인·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수출 촉진

① (K-상품 온라인 판촉전)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쇼핑 시즌별로 집중 프로모션 (유망상품 기획전, 할인행사 등) 추진

【 주요국(미·중·일 등) 쇼핑시즌 일정 】

5월	6월	9월	10월	11월	12월
어머니의 날	아버지의 날	신학기	할로윈	블랙프라이데이	크리스마스
주얼리, 화장품 등	넥타이, 의류 등	학용품, 전자기기 등	파티소품, 약세사리 등	상품 전반	상품 전반

② (온라인 한국전시관) 해외 유망 오프라인 전시회에 온라인 한국 전시관 동시 구축 (5월 ~)



< 베트남 스마트시티 전시회(4.13~15) >

* (5월) 방콕 식품 박람회, (7월) 라스베이거스 화장품 전시회, (9월) 베를린 가전 박람회, (10월) 아부다비 석유가스 산업전, (11월)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 등

- 구축된 온라인 전시관을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前 사전 홍보, 개최 後 구매문의·계약협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활용

* 오프라인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전시관은 지속 유지

6 무역장벽 부담 완화 및 현장 지원체계 강화

❶ (수출금융) 수출중소기업 등에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추가공급 추진 (중진공, '23.하)

-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* 5,500억원 추가 공급 (기보, 5월)

* 보증료 감면(최대0.5%p), 보증비율 상향(85→100%) 등

❷ (글로벌규제·해외인증) 글로벌 규제(ESG·탄소중립)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 기능 확대*,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 ('23.하)

* (기존) 6개 인증(CE, FDA, NMPA 등), ESG·탄소중립 등 → (확대) 8개 인증(IECEE, PSE 추가)

【 해외인증 전담대응반 운영 프로세스 】



-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(22종→11종)하여 행정부담 완화 추진 (6월)

* '21년 사업만족도 조사결과, 다수기업에서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요청

❸ (현장애로 해소)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'지역 수출 활성화 TF'를 구성하여 수출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체계 확충 (6월)

* 15개 수출지원센터별로 지역 수출유관기관·지역 수출기업·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수출 리스크 관리, 수출지원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애로 청취

- 지역별 주력산업 중심으로 수출여건 점검 및 기업의 수출애로 발굴·해소를 위해 매월 권역별로 릴레이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* 호남(6월) → 충청(7월) → 대구경북(8월) → 부산경남(9월) → 강원(10월) → 수도권(11월)

- '글로벌 강소기업 1,000+' 선정기업 등 유망 수출기업에 1:1 전담관을 매칭하여 신속한 애로 해소 등 밀착 관리

V. 추진 일정

주요 추진과제	부처·기관	추진 시기
1. 수출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의 전략적 우대		
·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 제외 및 이차보전을 상향	중기부·중진공	‘23.하
· 수출 관련 자금에 대한 보증금액 산정한도 확대	중기부·기보	‘23.하
· 수출기업에 대한 R&D 평가 우대	중기부	‘23.하
2. 수출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		
· 강소기업 R&D 연계 및 협력 네트워킹 강화	중기부	‘23.5월
· 간접수출 우수 중소기업 정책 우대	중기부	‘23.5월
3.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다각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		
· 수출바우처 지원 다각화 및 전략 컨설팅 강화	중기부	‘23.6월
·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	중기부	‘23.하
4.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, 현지진출 활성화		
· 사우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	중기부	‘23.9월
· K-콘텐츠 연계 수출박람회 및 판촉전 개최	중기부	‘23.5월
· 글로벌 수출전시회 참여 확대	중기부	‘23.5월
· 글로벌 소싱페어 개최	중기부	‘23.9월
·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	중기부	‘23.6,11월
5. 온라인·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수출 촉진		
· 글로벌쇼핑몰 협업 K-상품 온라인 판촉전 추진	중기부	‘23.5월
· 온라인 한국전시관 구축	중기부	‘23.5월
6. 무역장벽 부담 완화 및 현장 지원체계 강화		
· 수출금융(정책자금, 보증) 추가 공급	중기부·중진공·기보	‘23.하
· 글로벌규제·해외인증 대응력 제고	중기부	‘23.6월
· 지역 수출 활성화 TF 운영 등 현장애로 해소	중기부	‘23.6월